

급증하는 상배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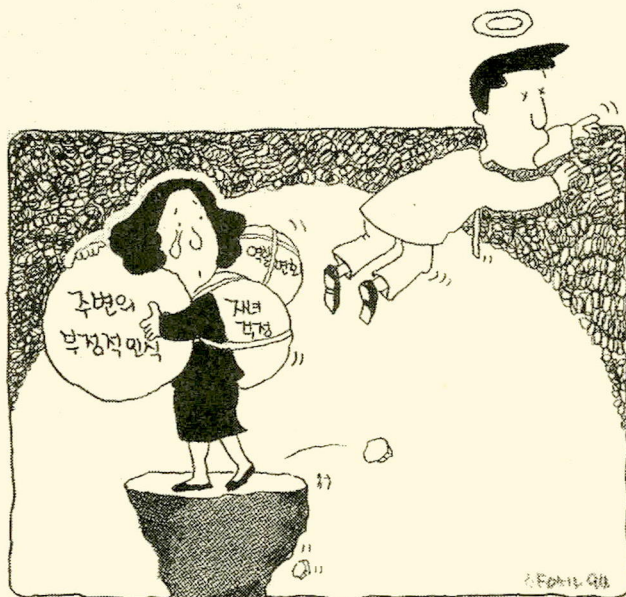
배우자 잃은 여성 위한 사회적 지원망 절실

정은 씨, 여성학회서 상배(喪配)여성 연구 발표

40대 가장의 돌연사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배우자를 잃은 상배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논문이 11월 19일 이화여대 인문관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정은(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수료)씨가 상배여성 90명을 조사했다. 9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사별 가족은 전체 가족의 10%에 이른다. 정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연령이 3.40대에서 88%를 차지하고 사망원인이 교통사고, 돌연사와 관련된 심장마비, 고혈압, 뇌출혈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중 55.5%가 한달 이내에 과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배우자와 사별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갑자기 배우자를 잃게 된 여성들은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역할변화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문제로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의 상배여성들은 배우자 죽음에 대한 집착, 비탄, 슬픔, 의기소침을 경험한다. 혼자된 여성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특히 '딸자가



드센 며느리가 서방 잡아먹었다'는 식의 시택식구들로부터의 비난과 부부동반 모임에

음으로 직업을 갖는 것, 종교 활동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자들은 밝혔다.

상배 여성 위한 정책 부재 상황에서 단친가족에 대한 사회적 홀대로 더 힘들어

초대받지 못하며 관공서에서까지 과부, 미망인으로 낙인찍히는 경험은 상배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사별후 혼자된 상황에 적응하는 대처행동으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고 그 다

사별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은 곳은 친정부 모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구 결과는 오히려 친구, 이웃의 지원이 더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이 친정부였으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여성은 10%에 불과했다.

정은 씨는 가정주부로 집안 일만을 평생해왔을 경우 사회 속에서 고립되어 남편의 경력과 사회적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돼 있으며 이 상황에서 남편의 죽음은 유일한 사회적 자원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정씨는 상배여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체계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기는 하나 이같은 서비스는 문제해결도 어렵거나 문제 자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부재 상황에서 '과부', '미망인' 등의 명칭도 '남편을 잡아먹은 드센 며느리' 등의 관습적인 비난, 양친 가족만 정상이고 단친가족은 결손 또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통념적 논리는 상배여성들의 고통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은 씨는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된 여성들은 그 불행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라며 이들이 직면한 심리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사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